

京板坊刻小説의 商業的 性格과 異本出現에 對한 研究

李 昶 憲*

I. 緒 論

古典小説 中에서 坊刻本으로 刊行된 小説을 흔히 坊刻小説¹⁾이라 지칭한다. 이들 坊刻小説의 基本的 性格의 하나로 계속 지적되는 것이 이른바 商業主義이다. 이것은 곧 板刻本의 分類²⁾에 있어서 나타나는 坊刻이라는 명칭 속에는 이미 商業性이 內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기에 고전소설이 방각되어 印行되었다는 사실은 곧 텍스트가 고정된다³⁾는 긍정적 측면을 지니는 반면에 坊刻이라는 명칭 속에 이미 내재하고 있는 상업적 속성으로 말미암은 부정적 측면 역시 지니게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방각소설이라고 하였을 때에는 문학작품이 문학작품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과 소비라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 지배되는 하나의 상품으로 존재하게 됨을 말한다. 이처럼 문학작품이 상품으로

* 박사과정

- 1) 방각본에 대한 연구로는 金東旭, 韓語小説 坊刻本의 成立에 對하여 (郷土 서울 8호, 1960.7) (이것은 「春香傳研究」에 재록되었다.) _____, 坊刻本에 對하여 (東方學志 11집, 1970) 安春根, 坊刻本論攷(書誌學 창간호, 1968.9) 趙東一, 英雄小説 作品構造의 時代的 性格, 韓國小説의 理論(지식산업사, 1977) 柳鐸一, 完板坊刻小説의 文獻學的研究(學文社, 1981) _____, 京板坊刻小説의 文獻學的 研究를 위한 模索(陶南學報 7·8합집, 1985) 등이 있으며, 坊刻小説이라는 명칭이 쓰인 것은 柳鐸一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 2) 판각본은 크게 官刻本 寺院刻本 私刻本 坊刻本으로 분류할 수 있다.
- 3) 拙稿, 高전소설의 혼사장애구조와 유형에 관한 연구(國文學研究 81輯, 1987) pp. 5~9

존재할 때에는, 생산과 소비의 측면을 각각 담당하고 있는 작자와 독자 사이에, 작품의 분배에 관여하는 매개항으로서의 仲介者의 역할이 차츰 드러나게 된다. 이들 중개자는 흔히 理念的 중개자(die ideelen Vermittler)와 物質的 중개자(Materielle Vermittler)로 구분되며, 후자인 물질적 중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책(書僮)·賃册業者·坊刻業者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이들 중에서도 방각업자는 <소설의 원고를 구하고, 板木을 새기고, 종이를 사서 인쇄를 하고, 출판된 소설을 판매하는> 일련의 과정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 방각업자들은 <원고를 구할 때 原稿料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했을 것이고, 판목을 새길 때 勞賃을 지불했을 것이고, 종이를 구할 때 종이값을 지불했을 것이고, 출판된 소설을 판매할 때 이익이 보장되어야 했을 것>⁴⁾이니, 그들은 출판업에 대한 그들의 인식이 어떠한 것이었던 간에 상업적 이윤 추구라는 합목적성을 추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합목적성은 작품 자체에도 여러가지 변모를 초래하였으리라 추측되며, 또한 그 변모 역시 실질적으로 확인된다. 변모의 구체적인 모습은 크게 두가지로 나타난다. 즉 册數의 변화——예를 들면 上·下 兩卷의 册을 上·中·下 三卷의 册으로 分卷하는 경우——와 책 전체 張數의 축소——예를 들면 30장본의 책을 20장본으로 축소하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책수의 변화 즉 分卷의 경우에 있어서는 총판매수입금액의 증대에 의해 이윤을 확보하는 모습을 보인다. 즉 각 권당 @라는 금액으로 책을 판매하는 경우에 上·下 兩卷으로 된 책을 판매하면 $2 \times @$ 라는 수입금액을 확보하며, 上·中·下 三卷으로 된 책을 판매하면 $3 \times @$ 라는 수입금액을 확보하게 된다. 따라서 같은 장수로 되어있는 하나의 작품을 兩卷으로 分卷하여 판매하는 경우와 三卷으로 分卷하여 판매하는 경우 후자에 있어서는 그 차액인 @만큼의 판매수입금액을 더 얻을 수 있게 되며, 이것으로 인하여 생산단가의 상승분을 상쇄하고 이윤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4) 趙東一, 앞의 글 p.413

반면에 작품 전체의 張數를 줄이는 경우 즉 장수 축소의 경우에는 각 작품의 생산단가의 절감을 통하여 이윤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든 것처럼 30 장으로 된 작품을 @의 금액에 판매하던 것을 20 장으로 된 작품으로 축소하여 @의 금액에 판매하게 되면, 10 장에 해당하는 생산비를 절감함으로써 생산단가의 상승분을 상쇄하고 이윤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와같은 방식에 의해 파생되는 작품은 대개 훼손된 판목을 보좌하여 이행할 때에 많이 응용했던 것으로 추측된다.⁵⁾

이러한 소박한 이윤추구의 원리는 방자소설의 本文變異와 異本出現이라는 모습으로까지 확대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그 變異는 작품의 본질적인 변이까지 초래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단지 서술의 양에 있어서 부분적인 누락이나 축약 또는 부연을 가져올 뿐, 작품 전체의 구조와 의미 변화까지 초래하지는 않기 때문이다.⁶⁾

이러한 의미에서 이 글은 同類系異本에 대한 연구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異本에 대한 연구는 주로 정태적 이본의 출현양상에 관심을 기울이는 同類系異本에 대한 연구와 동태적 이본의 출현양상에 관심을 기울이는 異類系異本에 대한 연구라는 두개의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⁷⁾ 특히 전자에 있어서는 주로 작가가 뚜렷한 작품에 있어 원본의 확정 또는 재구에 주된 관심을 보여주며,⁸⁾ 후자에 있어서는 작품 전체의 총괄적 맥락을 살피는데 주된 관심을 보여주었다.⁹⁾

이러한 사실들은 곧 이 글이 同類系異本에 대한 연구와 더 밀접한 관

5) 여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는 卷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금액으로 작품이 매매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II장과 III장의 논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된다.

6)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전운치전에 있어서는 상당한 양의 판목을 누락시키고 있어 이야기의 전개에 무리가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III장의 전운치전 관련 부분을 참조 할 것.

7) 설성경, 坊類古小説의 본문비명, 고소설의 구조와 의미(새문社, 1986) pp. 386~389 黃湏汀, 고전 소설 연구사 서설, 古典小說研究의 方向(새문社, 1985) pp. 60~64

8) 이러한 연구의 대표적인 것으로 丁李福, 九雲夢研究(고대출판부, 1974) _____, 九雲夢原典의 研究(일지사, 1977) 등이 있다.

9) 이러한 연구의 대표적인 것으로 金東旭, (增補)春香傳研究(연대출판부, 1976) _____(外), 春香傳比較研究(三英社, 1979) 등이 있다.

련을 지니게 됨을 말해준다. 왜냐하면 坊刻小說이 지니는 긍정적 측면으로서의 텍스트의 고정성은 곧 이본의 출현에 있어서 정태적인 동류제 이본의 출현 가능성을 높여주며, 이들 이본에 대한 접근은 방자 소설의 이본 연구에서 소홀하기 쉬운 상업적 성격에 따른 이본의 출현 양상에 대한 검토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경판방자소설에 있어서 이본출현 및 본문변이의 양상을 먼저 分卷의 경우를 중심으로 하여 검토하고, 이어서 장수의 축소 경우를 중심으로 검토하며, 이어서 이러한 이본출현의 원인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Ⅱ. 分卷에 의한 異本出現과 本文變異

현재까지 수집·간행된 坊刻本 자료 중에서¹⁰⁾ 分卷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황운전」「월봉기」「사씨남정기」「설인귀전」 등이 보인다. 이제 이들을 각 작품별로 살펴보면서 구체적인 分卷의 양상과 이에 따른 本文變異의 양상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여기에서 중점을 두는 것은 板本의 동일성 여부, 개각된 부분의 대조, 分卷에 의한 각卷의 張數의 變化 등이다. 특히 改刻된 부분의 대조에서는 刻字體의 同異여부와 함께 본문의 침삭 양상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

1. 「황운전」

현재 접할 수 있는 황운전의 온전한 판본으로는 <황운전 권지일(30장본)> <황운전 권지이 중(29장본)>으로 되어있는 59장본¹¹⁾(이하 이를 각각 上30장본, 下29장본이라 지칭한다)과 <황운전 권지일(22장본)> <황운전 권지이(19장본)> <황운전 권지삼(18장본)>으로 되어 있는 59장본¹²⁾(이하 이를 각각 上22장본, 中19장본, 下18장본이라 지칭한다)이 확인된다.¹³⁾

10) 金東旭(편), 景印古小說板刻本全集 全5卷(羅孫書屋)과 梨花女大 韓國文化研究院(편) 韓國古代小說叢書 全4卷 등이 있다.

11) 金東旭(편), 景印古小說板刻本全集 卷五 pp. 1019~49(이하 이들은 全集五, 1019~49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함)

12) 全集三, 517~46

이 두 판본을 대조하여 보면 동일한 판목을 약간 개작하여 간행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改刻된 부분은 모두 세 곳에서 확인되며, 이들 부분을 제외하고 양본은 완전히 일치한다.

개작된 부분을 중심으로 하여 양본을 대조¹³⁾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上30장본〉의 22장 후엽 13행까지와 〈上22장본〉의 22장 후엽 13행까지는 온전한 일치를 보이고 있으며, 양본의 14행에서부터 차이를 보이기 시작한다. (/은 행구분, //은 장구분, ()안의 숫자는 행수를 지칭하며, 이하 모든 인용문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A1]/(13)명이 장차 망케되엇더라 초설 이씨 황운이 밤시도록 달너 / (14) 오다가 형슈정하의 이르러 숲머본죽 성상의 진형의 기치// (1)를 쏘고 성문을 구지 다닷거늘 황운이 망조호여 아모리 홀/ (2)줄 모로더니 문득 먼니 바라본 죽 불이 빛휘는지라 급히 초조/ (3)가니 소오인이 우다가 다라노거늘 황운이 달너여 왈 나는 격병/ (4)이 아니리 의심치 말고 천조 계신 곳을 가르치라 혼디 그 사람이/ (5)그제야 정신을 진정호여 천조의 전후스연을 이르는지라 황/ (피어쓰기 및 방점은 필자, 이하 같음)¹⁴⁾

[B1]/(13)명이 장차 망케되엇 (이하여백)// (1)황운전 권지이/ (2)초설 이디 황운이 밤시도록 가 형슈정하의 이른죽 성상의 진형/ (3)의 기치 쏘치고 문이 구지 다닷거늘 정이 망조호 지음의 퍼문호는/ (4)소오인을 만나이 기인이 황검호거늘 달너여 천조 계신 곳을 무/ (5)로니 기인이 그제야 정신을 정호여 천조의 전후스을 이르는지라 황/ ¹⁵⁾

[A1]의 경우는 刻字體가 그 앞뒤와 동일하지만, [B1]의 경우는 〈명이 장차 망케되엇〉까지는 동일한 刻字體이지만 이하 1행에서 5행까지는 완전히 다른 刻字體이다. 또한 서술의 양에 있어서도 [A1]의 내용이 [B1]에서는 축약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中19장본〉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황운전 권지이〉를 한 행에 독립시켜 새겨야만 하기에

13) 이들 이외에 나질본이 全集三, 547~62에 실려있다.

14) 여기에서 대조하는 것은 本文과 行·字의 위치와 刻字體 등이며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板心은 제외한다.

15) 全集五, 1030

16) 全集三, 528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B1]의 경우에 있어 <명이 장칫 망케 되엿>이하의 부분을 모두 여백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A1]의 해당부분을 모두 刪略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사실들은 곧 [A1]의 경우가 [B1]의 경우보다 선행함을 의미한다 하겠다. 더군다나 [B1]의 경우에 있어서는 <형쥬성하>를 <형쥬정하>, 로<진형>을 <징형>등으로 오작하고 있음에서 더욱 그러하다 하겠다.

이하 <上30장본> 23장 전엽 6행부터 30장 후엽 13행까지와 <中19장본> 1장전엽 6행부터 8장 후엽 13행까지는 온전히 일치한다.

차이는 이하 14행에서부터 나타난다.

[A2]/(14) ㅎ니 승상이 쥬연불이 ㅎ더라 하회 분석 ㅎ라// (1) 황운전 권지이 중 / (2) 화셜 승상이 ㅎ군을 휘동 ㅎ여 나아갈시 형초의 이르러 업/¹⁷⁾

[B2]/(14) ㅎ니 승상이 쥬연불이 ㅎ여 왓 소세 ㅎ즈 ㅎ민 소정이 아모// (1) 리 절박 ㅎ나 국가 ㅎ소을 급히 역여 즉시 ○○○ ㅎ라// (2) ㅎ고 승상이 ㅎ군을 휘동 ㅎ여 나아갈시 형초의 이르러 업/¹⁸⁾

우선 刻字體를 살펴보면 [A2]의 경우는 앞뒤와 동일한 字體이나, [B2]의 경우는 상이한 字體이다.¹⁹⁾ 또한 서술의 양에 있어서도 [B2]는 [A2]의 경우보다 약간의 부연을 통하여 앞뒤를 연결하고 있다. 이것은 곧 <上30장본>의 마지막 부분과 <下29장본>의 시작부분을 <中19장본> 안에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A2]의 경우, 즉 <下29장본>의 첫행이 <황운전 권지이 중>이라는 독립된 행으로 제목을 제시하고 있기에 그 남은 여백을 메우기 위하여 부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上30장본>의 말미와 <下29장본>의 서두를 연결하여 <中19장본>으로 만들기 위한 改刻이라고 하겠다. 이같은 사실은 곧 [A2]의 경우가 [B2]의 경우보다 선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하 양본은 온전한 일치를 보이며 계속되다가 <下29장본>의 11장 후엽 13행의 마지막 글자에서부터 12장 전엽 2행까지와 <中19장본>의

17) 全集五, 1034~5

18) 全集三, 532

19) 14행의 <ㅎ니 승상이 쥬연불이 ㅎ>와 2행의 <승상이 ㅎ군을>이하의 양본 모두 동일한 刻字體이다.

19장 후엽 13행의 마지막 글자에서부터 <下18장본> 1장 전엽 2행까지에서 차이를 보인다.

[A3]/(13) 소로 디원쉬되여 삼십만병을 조발하여 파죽으로 향하니라 초/(14) 설 손즈의 군수를 모라 복관의 이르러 성 밧기 진치고 디호 말 반//(1)적 설 연은 드르라 톱지 무도하기로 동편의서 죽은지 오릿거늘 너의 부/(2)뵈 업는 톱즈를 빙즈하여 변방을 요동케 하든 엇진 일이노 설연이/20)

[B3]/(13) 소로 디원쉬되여 삼십만병을 조발하여 파죽으로 향하니라(이하어 백)//(1)황운경 권지삼/(2)초설 손즈의 군시 복관성 밧지 진치고 싸흠을 도르 오니 설연이/21)

[A1]과 [B1], [A2]와 [B2] 사이의 관계처럼 刻字體에 있어서도 [A3]은 동일한 字體이나 [B3]은 상이한 字體임이 확인된다. 또한 [B3]에서는 [A3]의 <초설 손즈의>이하 부분을 刪略하고 <황운경 권지삼>이라 하여 새롭게 卷을 나누고 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B3]은 [A3]보다 축약된 서술의 양을 보이고 있다 하겠다. 특히 [B3]의 경우에 있어서는 <황운전>을 <황운경>이라 誤刻하고 있으며, <밧기>를 <밧지>라 誤刻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은 곧 [B3]이 [A3]의 板木을 부분적으로 改刻한 것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A3]이 [B3]에 선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兩本의 차이가 나타나는 곳의 위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A1]과 [B1]의 경우는 <上22장본>과 <中19장본>이 分卷되는 위치이며, [A2]와 [B2]의 경우는 <上30장본>과 <下29장본>이 分卷되는 위치이며, [A3]과 [B3]의 경우는 <中19장본>과 <下18장본>이 分卷되는 위치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곧 연속되는 문면을 分卷하는 경우 또는 分卷된 문면을 연속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 여기에다가 刻字體의 同異 여부, 서술의 양에서 보이는 축소 또는 부연의 문제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공통점은 곧 <上30장본>과 <下29장본>으로 나뉘어져있던 작품을 판목의 부분적 改刻을 통하여 <上22장본> <中19장본> <下18장본>으로

20) 全集五, 1040

21) 全集三, 537

나눈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兩卷으로 分卷되어 있던 작품을 三卷으로 分卷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황운전의 경우에는, 〈上30장본〉의 22 장까지를 22 장 후엽 마지막 부분을 부분 改刻하여 〈上22장본〉으로 만들고, 〈上30장본〉의 23 장부터 30 장까지와 〈下29장본〉의 1 장부터 11 장까지를 부분 改刻하여 〈中19장본〉으로 만들고, 〈下29장본〉의 12 장부터 29 장까지를 부분 改刻하여 〈下18장본〉으로 만들었다 하겠다. 이처럼 分卷하는 경우에 本文의 부분적인 變異가 일어났고, 특히 誤刻의 모습도 보인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三卷으로 된 황운전은 二卷으로 된 황운전으로부터 파생된 同類系異本이라 하겠다.

2. 「월봉기」

월봉기의 온전한 판본으로는 〈월봉기 일(34 장본)〉〈월봉기 이 종(33 장본)〉으로 되어 있는 67 장본²²⁾(이하 이를 각각 上34장본, 下33장본이라 한다)과 〈월봉기 일(20장본)〉〈월봉기 이(23장본)〉〈월봉기 삼(23장본)〉으로 되어 있는 66 장본²³⁾(이하 이를 각각 上20장본, 中23장본, 下23장본이라 한다)이 확인된다.

兩本을 대조하여 보면 동일한 판목을 부분적으로 改刻하여 간행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들을 차례로 대조하여 보면 〈上34장본〉의 20 장 후엽 14 행까지와 〈上20장본〉의 20 장 후엽 14 행까지는 온전히 일치한다.

兩本의 20 장 후엽 15 행부터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上34장본〉의 21 장 전엽 3 행까지와 〈中23장본〉의 1 장 전엽 3 행까지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인다.

[A]/(15)의 엇지 되였는지 모로노라 ㅎ거놀 어시 청과의 업되여 통곡 왓 소
 즈는//(1)곳 덩부인의 북중이로소이다 ㅎ니 현녕이 심혼이 비월하여 인스톨
 /(2)찰히지 못ㅎ고 부지 서로 붓드러 통곡ㅎ다가 이육고 정신을 슈습ㅎ여/(3)
 전후스단을 디강 설화ㅎ며 왓 하놀이 도오스 그췌 도적등이 지금 이곳의/²⁴⁾

22) 全集五, 593~627

23) 全集五, 629~64

24) 全集五, 604

[B1]/(15)엇지 되엇는지 모로노라 (이하여백)//(1)월봉괴 이/(2)츠설 어시
청파의 통곡 왈 소지 덩부인 북중의이나다 하고 부지 붓/(3)들고 전후스단을
설화하여 왈 하늘이 도으스 그췌 도적등이 지금 이곳의/25)

[A1]의 경우는 刻字體가 그 앞뒤와 동일하지만, [B1]의 경우는 <월봉괴 이>부터 3行까지가 그 앞뒤와 상이한 모습을 보인다. 특히 [B1]의 경우는 <엇지 되엇는지 모로노라>이하를 刪略하여 여백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刪略 이외에 <中23장본>의 시작을 표시하기 위하여 그 첫 행을 <월봉괴 이>로 새겨야만 하기에 [B1]의 경우는 [A1]의 경우보다 그 서술의 양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B1]의 경우 [A1]의 <북중의>를 <북중의>로 誤刻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실들은 결국 [A1]이 [B1]에 선행함을 말해준다 하겠다.

이하 兩本은 온전한 일치를 보이다가<上34장본>의 34 장 후엽 13행부터 <下33장본>의 1 장 전엽 6행까지와 <中23장본>의 13 장 후엽 13행부터 14 장 전엽 6행까지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A2]/(13)오는 선문이 츠르미 만져 십너정의 나와 마즈며 상이 또흔 너시를
보너스 원/(14)노구치하를 위로하시고 밧비 입조하라 하시니 상세 제인을 스테
하고 바/(15)로 꺾하의 나아가 부명흔디 상이 인견하실시 특별이 좌를 주시고
디//(1)연을 빅설하시니 왕경과 덩현과 소운 등이 또흔 입시하엿는지라 상/
(2)이 시로이 반기스 왈 경이 흥번 가리 남방을 진정하여 왕화를 베푸러/(3)
집이 밧던 바를 쳐바리지 아니하니 엇지 괴특하를 다 이르리오 하시고 근시/
(4)를 명하스 술틀 나와 친히 권하시며 특별이 천하병마디도독을 제/(5)슈하
스 왈 경의 충성을 표혈거시 업기로 아직 여간 판작을 주느니 경/(6)은 모로미
동츠축츠하여 집을 도오라 하시며 그 부모 맛난 전후스연을/(7) 못너 칭찬하
신티 상세 돈슈스은하고 북중의 도라와 장부인괴 최온디/(8) 장부인이 반기며
상셔의 손을 잡고 등을 어루만져 왈 쳐즈음괴 외직으/(9)로 보앗더니 엇지 오
놀츠 나의 손진줄 뜻하여스리오 하며 전후설화를/(10) 일카라 즐겨하미 비혈
디 업더라 하회 분석하라/(11)紅樹洞板(이하여백)//(1)월봉괴 이 중/(2)츠설
소사랑이 상셔더러 왈 네 왕상셔집과 경흔흔 말틀 엇지 날/(3)더러 이르지 아
니 하엿는노 하며 천츠의 교명을 어긋오지 못흔 스여/(4)과 덩너의 견집하는

뜻을 설파흔디 상세 디왈 혼스일결를/(5)고치 못호오른 후회막급이오며 덩녀의 신세도 가련타 호오려니와/(6)왕가녀조도 또흔 결단코 다른 마음이 업스을 지라 사세 가장 낭난호/²⁶⁾

[B2]/(13)오미 상이 인견허스 남방진덩허를 귀족이 역이사 술을 친/(14)히 전허시고 권하병마디도독을 계슈허시고 그 부모 만남/(15)전후스연을 못디 칭찬허신티 상세 돈슈스은호고 부중//(1)에 도라와 장부인게 뵈온디 장부인이 반기며 상셔의 손/(2)을 잡고 왈 저즈옴게 외직으로 보와더니 오날그 나의 손/(3)진줄 뜻허여스리요 허더라 츠설 소사랑이 상셔더러 왕상/(4)서집과 정혼호 말 고치 아니험과 권조의 교명과 덩녀의/(5)뜻을 설파흔디 상세 디왈 혼스고치 못호른 후회오며 덩내/(6)도 가련컨이와 왕가녀조도 다른 마음이 잇썬을지라 사세 가장 낭난호/²⁷⁾

兩本の 刻字體를 살펴보면 [A2]의 경우는 역시 앞뒤와 동일한 모습을 보이나 [B2]의 경우는 상이한 모습을 보인다. 또한 그 서술의 양에 있어서도 [B2]의 경우는 [A2]의 <上34장본>의 33장 후엽 마지막 3행과 34장 전엽의 10행 전부, 그리고 <下33장본>의 1장 전엽의 6행, 총 19행을 9행으로 축약하고 있다. 이는 곧 <上34장본>이 34장 전엽 10행으로 끝냈고 있기에, 이를 <下33장본>의 1장 전엽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34장 전엽 11행 이하 후엽까지 총 20행을 첨가하던지 34장을 전부 누락시키고 33장 마지막과 <下33장본> 처음 부분을 연결시키는 방법을 취해야만 한다. 여기에서는 후자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시간적 물질적 부담을 덜 수 있기에 19행을 9행으로 축약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생략된 <上34장본>의 34장으로 말미암아 上·下 67장본이 결국 上·中·下 66장본으로 바뀔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같은 무리한 축약을 위하여 [B2]의 <中23장본>의 해당면에서 9행이 새롭게 改刻된 것임을 알 수 있다.²⁸⁾ 이러한 급격한 축약의 과정에서 [B2]는 <왕가녀조도 다른 마음이 잇썬을지라>라고 하여 <왕가녀조도> <다른 마음이 업스을

26) 全集五, 610~1

27) 全集五, 647

28) 分卷에 의해 새로운 이본이 출현하는 경우, 상·하본의 연결부분에 해당하는 상·중·하본의 중본이 비교적 많은 개작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지라)라는 [A2]의 문맥을 완전히 뒤바꿔놓고 있다. 결국 이러한 사실들은 [A2]가 [B2]에 선행함을 보여준다 하겠다.

이하 兩本은 <下33장본> 10장 후엽 13행까지와 <中23장본> 23장 후엽 13행까지는 온전한 일치로 보이며, 14행부터 다시 차이를 보이기 시작하여, <下33장본> 11장 전엽 2행까지와 <下23장본> 1장 전엽 2행까지 그 차이가 계속 나타난다.

[A3]/(14)현알하는 벼를 킁하라 하시더이다 하거늘 공쥬 승상더러 못지 아
/ (15)니하고 피쳐 디왈 소네 감히 구고괴 뵈옵지 못할줄노 알외라 혼디// (1)
부디 그 뜻을 아지 못하고 ㄷ히 녀겨 왈 녀진 성베 후 구고괴 뵈오미 응/ (2)당
흔 법베여늘 이제 옥취 탈하시른 무슴 일이뇨 아지못게라 공쥬/29)

[B3]/(14)현알베를 킁하라 하시더니다 하디 옥취 알외라 하되 구고를 감히
올외/ (15)지 못하기다 하니 엇진 연편지 초간 하회하라// (1)월봉괴 삼/ (2)초
설 옥취 구고를 뵈옵지 못하기로 알외라 하거늘 부마 왈 공쥬/30)

刻字體에 있어서 [A3]은 앞뒤와 동일한 모습을 보이나 [B3]은 앞뒤와 다른 모습을 보인다. 더군다나 [B3]의 경우는 <월봉괴 삼>의 시작을 알리기 위하여 한 행을 온전히 차지하게 됨으로써 4행에 해당하는 서술을 3행으로 축약하여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역시 [A3]이 [B3]에 선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하 兩本은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며, 다만 마지막에 나타나는 刊記에서 차이가 드러난다. <下33장본>에서는 刊記가 <由泉新刊>으로 나타나며 <下23장본>에서는 刊記가 <泉新刊>으로 나타난다. 刊記의 형태는 동일하며 다만 <由>字만이 刪略되어 있다. 이처럼 刊記에 있어서 부분적 刪略이 나타나는 것은 板木의 매매에 의한 것이라 추측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가지 더 고려해야 할 사실은 <上34장본>의 말미에 나타나는 <紅樹洞板>이라는 간기와 관련된 것이다. 이것이 上·中·下三卷으로 분권되는 과정에서 완전히 刪略되고 있어, 그 원인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무리한 축약과 관련된 것이라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29) 全集五, 616

30) 全集五, 653~4

여기에서 의문으로 남는 것은 <上34장본> <下33장본>으로 된 67 장본의 월봉기를 인행하는데 있어 왜 각각의 간기가 달리 나타나는가 하는 점이다. 혹 이것이 방각본의 출간에 있어서 방각업자들의 연합에 의한 공동출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왜냐하면 구할자본 소설의 경우에도 동일한 한편의 작품을 두군데 이상의 출판사가 공동으로 관련하여 출판하는 경우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단지 이러한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기로만 한다.³¹⁾

「월봉기」에 있어서도, 앞서 살핀 「황운전」의 경우와 같이, 兩本의 차이가 나타나는 위치에서 공통성을 드러낸다. 결국 이러한 사실들은, 「황운전」의 경우와 같은 이유로, <上34장본> <下33장본>으로 나뉘어져있던 작품을 板木의 부분적 改刻을 통하여 <上20장본> <中23장본> <下23장본>으로 나눈 것임을 말한다 하겠다. 즉 兩卷으로 分卷되어 있던 작품을 三卷으로 分卷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월봉기의 경우에는, <上34장본>의 20 장까지를 20 장 후엽의 마지막 부분을 부분 개각하여 <上20장본>으로 만들고, <上34장본>의 21 장 이하 34 장까지와 <下33장본>의 10 장까지를 부분 개각하여 <中23장본>으로 만들고, <下33장본>의 11 장부터 33 장까지를 부분 개각하여 <下23장본>으로 만들었다 하겠다. 이같은 분권의 과정에서 <上34장본>의 34 장을 제외하여, 총 19 행에 해당하는 서술을 9행으로 축약함으로써, 전체적으로 1 장이 줄어든 66 장본 「월봉기」가 나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사씨남정기」

현재 접할 수 있는 사씨남정기의 판본으로는 낙월본인 <사씨남정기 하(34 장본)>³²⁾(이하 낙월본)와 <사씨남정기 상(32 장본)> <사씨남정기 하(34 장본)>로 되어 있는 66 장본³³⁾ (이하 上32장본, 下34장본), 그리

31) 동형동판에서 간기가 달리 나타나는 경우들을 함께 검토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방각업자들의 성취와 관련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32) 全集一, 411~27

33) 全集四, 273~306 이 중 하권은 3장과 4장이 누락된 상태로 모두 32 장만 영인되어있으나 목차에는 이를 34 장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 누락은 낙월본의 해당부분을 참조할 수 있다.

고 <사시남정귀 상(21장본)> <사시남정귀 중(21장본)> <사시남정귀 하(23장본)>로 되어 있는 65 장본³⁴⁾ (이하 上21장본, 中21장본, 下23장본)이 있다. <낙질본>과 <下34장본>은 동형동판이며, 다만 <下34장본>의 3장과 4장이 탈락되어 있기에 <낙질본>의 해당면을 참조하면 <下34장본>의 재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上32장본>과 <下34장본>을 <上21장본> <中21장본> <下23장본>과 대조하면 <낙질본>의 대조까지를 결합할 수 있다.

兩本을 대조하여 살펴보면 동일한 판목을 부분 개각하여 인행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上32장본>과 <上21장본>은 21장 후엽 12행까지 온전히 일치하여, 13행에서부터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이기 시작한다.

[A1]/(13)계교를 핁키 어렵도다 호고 냥인이 서로 근심호더라 츠/(14)시 두부인이 사시를 위호여 옥지환 거처를 방문호되//(1)종적을 아지 못호미 마음의 울호여 칭각호되 교녀의/(2)작젠가 호는 호호 알 길이 업서 이후로는 한남집의 왕/(3)너치 아니호더라 오리지 아니호여 두부인의 아들 두덕/³⁵⁾

[B1]/(13)계교를 핁키 어렵도다 호고 냥인이 서로 근심호더라(이하여백)//(1)사시남정귀 중/(2)화설 두부인이 사시의 옥지환 종적을 몰나 마음의 울호여/(3)여 한남집의 왕너 아니호더니 마참 두부인의 아들 두덕/³⁶⁾

[A1]의 경우는 역시 刻字體가 그 앞뒤와 동일한 모습을 보이지만, [B1]의 경우는 <……근심호더라>까지는 刻字體가 동일하지만 그 이하는 앞뒤와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이것은 <上21장본>을 끝맺기 위하여 <上32장본>의 21장 후엽 13행의 <……근심호더라>이하의 부분을 刪略한 것이라 하겠다. 또한 서술의 양에 있어서도 [B1]은 <中21장본>의 시작을 알리기 위하여 <사시남정귀 중>에 1행을 배당함으로써 [A1]의 약 4행

34) 全集四, 307~42 목차에는 각권의 장수를 옳게 표시하고 있으나 실제 영인상태를 보면, 中에서 2장이 누락된 상태로 판심에 장수가 표시되어 19장으로 되어있으며, 12장과 13장사이에 2장이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下에서는 10장 후엽과 11장전엽이 한번 더 영인되어 있다. 이들은 낙질본을 참조할 수 있다.

35) 全集四, 284

36) 全集四, 318~9

에 해당하는 서술을 2행으로 축약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곧 [A1]의 해당하는 면이 <上32장본>의 21장 후엽과 22장 전엽이라는 점에서 21장의 후엽 13행의 <……근심하더라>이하를 刪略하여 여백으로 처리하고 이를 <上21장본>으로 독립시킴으로써 <上32장본>의 22장 전엽의 앞부분인 3행을 改刻하여 <中21장본>의 시작으로 삼은 것이다. 결국 이는 [A1]이 [B1]에 선행한 것임을 보여준다 하겠다.

이하 兩本은 동일한 모습을 보여준다. 즉 <上32장본> 22장 전엽 4행 이하와 <中21장본> 1장 전엽 4행 이하는 온전한 일치를 보여주다가, <上32장본>의 32장 전체와 <下34장본>의 1장 전엽 3행까지의 부분이 <中21장본> 11장 전엽 1행에서 3행까지의 부분과 다음과 같이 엄청난 차이를 보여준다.

[A2]//(1)부름 의지하더니 비록 천경이는 엇지 슬부지 아니리/(2)오 사시 오열 디왈 비록 두부인 명으로 성중의 가오노 하/(3)정의 지극 결연호와 셔는 만 지랍하옵더니 앓가 존귀 이르/(4)스 두부인 서찰이 위조라 하시니 첩이 셔는지 아니코 묘하/(5)의셔 늙을가 하노이다 소시 팔 본디 이 관히도 오티 못 이슬/(6)곳이니 현부의게 칠년 지익이 잇는지라 남네 오천니 밧그/(7)로 갈거 시니 금일 천경이는 정히 이 말을 이르려 하미오 이후/(8)늙년 소월 망일의 비를 빅빈쥬의 다려다가 급흔 소름을 구/(9)호디 부디 명심하여 엇지 말는 사시 체음 왈 금일 편전을 셔노오/(10)니 어너 셔 다시 뵈오라잇고 부인이 사시를 어로만져 왈 도시/(11)천쥬라 현마 엇지하리오 즉금은 흥하는 후일은 길하리 니/(12)천만보쥬하리 하니 사시 창연하물 이기지 못하여 절하야/(13)호지홀 지 누쉬 앗홀 같이워 섬의 누리디가 실족하여 놀나/(14)더니 남가일봉이라 호회 분석하라/(1)사시남정귀 하/(2)화셜 사부인이 실족하여 놀는 세다르니 남가 일봉이/(2)라 몽시 잘못 녀호여 상시와 갓트니 유모와 초환을/37)

[B2]//(1)부름 의지하노라 현부 칠년 지익 닛셔 남역 오천니을 갈거시/(2)오 늙년 소월 망일 비를 빅빈쥬에 다려 소름을 구하라 사시 세다/(3)호니 몽시 잘못 녀호여 상시와 갓트니 유모와 초환을/38)

장황한 인용이지만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이 보인다. 兩本이 서

37) 全集四, 289~90

38) 全集四, 324

술의 양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야기의 전개에 필요한 필수적인 사건——곧 육년후 백빈주에 배를 준비하여야 한다는 점의 예시——은 [A2]의 경우나 [B2]의 경우 모두 나타나고 있다. [A2]의 서술의 양은 총 16행이며 [B2]의 서술의 양은 3행이다. 16행을 3행으로 줄이고 있다는 것은 묘사의 세밀성을 제거한 채, 이야기의 線條的 進行的 進行的 필수적인 사실만을 축약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축약의 비율을 보면 16:3, 약 20%로도 되지 않는 비율을 보인다.³⁹⁾

이와같은 극단적인 축약을 보이는 까닭은 자 권의 말미에 여백이 있는 경우 여기에 이야기를 부연해 넣는 것보다는 이를 축약하는 것이 그 전개에 있어서 자연스럽다는 측면과 함께 시간적 물질적 절약이라는 측면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핀 황운전의 경우 즉 [A2]의 경우에 서처럼 그 여백이 1행 정도에 그친다면 부연이 훨씬 간편한 것이지만, 월봉기의 [A2]의 경우나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그 여백이 한 열 이상 이기에 이를 축약하여 판목의 수를 줄이는 것이 시간적 물질적 절약을 가져옴으로써 생산단가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上32장본>의 32장 판목을 제거하고 이를 축약하여 개작한 것이라 하겠다. 더군다나 刻字體의 同異 여부를 고려할 때 그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하겠다. 결국 이러한 사실들은 <上32장본>의 22장이하에서 32장을 제거하고 <下34장본>의 11장까지를 부분적으로 개작하여 <中21장본>으로 독립시킨 것이라 하겠다.

이하 양본은 동일한 모습을 보이다가 <下34장본>의 11장 후엽 14행에서 12장 전엽 2행까지와 <中21장본> 21장 후엽 14행에서 <下23장본> 1장 전엽 2행까지가 다른 모습을 보인다.

[A3]/(14)읍더니 부인이 만노시도다 샤시 왓 엇기 어려운 것슨 계모의 마//
(1)읍이라 십여세 너지 효성이 2려호니 놀갓트 스톨은 엇지/(2)붓그럽지 아

39) 월봉기에 나타나는 19행의 9행으로의 축약에 비해, 여기에서는 16행을 3행으로 축약하는 엄청난 축약 비율을 보여준다. 여기에서처럼 약 20%의 비율로 축약하면서도 이야기의 전개가 가능하다는 것은 이러한 비율로 축약한 이본의 출현도 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니호리오 호고 탄식호를 마치 아니티라 샤시/⁴⁰⁾

[B3]/(14)옴더니 부인이 만능시도다 (이하여백) //(1)샤시남정기 하/(2)화설 샤시 취영의 효성 지극호를 총창부리티라 샤상/⁴¹⁾

[A3]과 [B3]의 관계는 刻字體, 내용의 축약 여부를 고려할 때 [A3]이 [B3]에 선행함을 알 수 있다. 특히 [A3]의 14행 <……만능시도다> 이하의 부분을 刪略하여 <中21장본>을 마무리 짓고, 약 2.5행에 해당하는 서술의 양을 1행으로 축약하여 <샤시남정기 하>를 새롭게 분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하 兩本은 온전한 일치를 보여, 마지막장의 <歲在辛亥季多由洞社板>이라는 刊記까지 일치한다.

결국 사씨남정기는 <上32장본>의 21장까지를 부분 개각하여 <上21장본>으로 만들고, <上32장본>의 22장부터 31장까지와 <下34장본>의 11장까지의 판목을 부분 개각하여 <中21장본>으로 만들고, <下34장본>의 12장 이하의 부분 개각으로 <下23장본>을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上32장본>의 32장의 해당 판목이 완전히 빠짐으로써 66장본 사씨남정기가 65장본으로 나오게 되었다 하겠다. 결국 이것은 上·下 兩卷으로 分卷된 작품이 上·中·下 三卷으로 새롭게 分卷되었다 하겠다.

4. 「설인귀전」

설인귀전의 판본으로는 <설인귀전 단(30장본)>⁴²⁾ (이하 단30장본)과 낙질본인 <설인귀전 상(17장본)>⁴³⁾ (이하 上17장본)의 두종류가 보인다. 양본을 대비하여 살펴보면 동일한 판목을 약간 개각하여 인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본의 첫장 첫머리인 작품명의 표기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난다. <단30장본>은 <설인귀전 단>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上17장본>은 <설인귀전 상>이라 표기되어 있다. 이하 2행부터 양

40) 全集四, 295

41) 全集四, 329~30

42) 全集四, 429~43

43) 全集一, 543~51

본은 동일한 모습을 보이다가 <上17장본>이 끝나고 있는 <단30장본>의 17 장 후엽 15 행과 <上17장본>의 17 장 후엽 15 행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A1]/(15)나 기다리실시 츠시 노병이 성을 철통궤치 썩스미 크게 근심하시더라//⁴⁴⁾

[B1]/(15)나 기다리실시 츠시 노병이 성을 철통궤치 썩스미 하회를 분석하라//⁴⁵⁾

[A1]의 마지막 부분인 <크게 근심하시더라>가 [B1]에서는 <하회를 분석하라>로 바뀌어 있음을 알 수 있다. 刻字體에 있어서도 [B1]의 <하회를 분석하라>를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上17장본>이 이렇게 끝나고 있다는 사실은, 앞에서 살핀 「황운전」 「월봉기」 「사씨남정기」의 上·下 兩卷本과 上·中·下 三卷本 사이의 관계를 고려할 때, <단30장본>의 18 장 이하를 독립시켜 <설인귀전 하>를 인행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추측이 타당하다면 그 장수는 13 장이 아니었을까 한다.

이때 존재할 수 있는 가상의 텍스트인 13장본 <설인귀전 하>의 모습은 <단30장본>의 18 장 전엽의 1 행과 2 행을 개각하여 제 1 행에 <설인귀전 하>라 새기고 제 2 행에 <단30장본>의 18 장 전엽의 1 행과 2 행의 내용을 축약하여 서술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단권으로 되어있는 작품이 어느 시기에 이르러 上·下 兩卷으로 分卷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겠으며, 分卷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약 30 장 정도가 아니었을까 추측된다. 왜냐하면 앞에서 살핀 세 작품의 분권 양상이 약 30 장 정도의 분량을 20 장 안팎으로 분권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설인귀전에서 보여주는 분권의 양상은, 이같은 현상이 단지 上·下 兩卷으로 분권된 작품이 上·中·下 三卷으로만 분권되는 것이 아니라, 단권 30 장 이상의 작품에서는 上·下 兩卷으로의 分卷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겠다. 비록 설인귀전의 경우에 있어서 분권된 上·

44) 全集四, 437

45) 全集一, 551

下 兩卷의 책이 모두 발견되고 있지는 않다는 이본 수집의 한계는 있지만 앞으로 이러한 이본 곧 <下13장본>이 나타나리라는 예전을 가능케 해준다 하겠다.

5. 「금향정기」·「숙향전」·「곽분양전」·「월왕전」·「현수문전」

설인커전처럼 불완전한 형태로 자료가 남아 있는 작품으로 금향정기 숙향전 곽분양전 월왕전 현수문전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새로운 분권이 있기 이전의 판본과 그 이후의 판본을 모두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분권이 새롭게 이루어졌으리라는 추측을 가능케 하는 작품들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들의 어느 부분이 부분적 개각을 통하여 새롭게 분권되었을 것인가를 刻字體의 차이를 중심으로 지적하기로 하겠다.

(1) 금향정기의 경우

<금향정기 일 (36장본)> <금향정기 이 종 (32장본)>으로된 68장본⁴⁶⁾이 하 上36장본, 下32장본)과 낙질본인 <금향정기 일 (20장본)>⁴⁷⁾이 있다. 대비가 가능한 부분을 살펴보면 <上36장본>의 20장 전엽 12행까지와 <上20장본>의 20장 전엽 12행까지는 동일하며 13행 이하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여준다.

[A1]/(13)연 디찰이 ㄷ스되 현판의 명경스라 흥여 장원이 퇴락호고 인/(14)초
 쳐이 업는지라 한님이 마지못하여 범당의 드러간즉 약간 중이/(15)이스나 한
 님의 힘신이 초취호물 보고 열시호미 주심호미 심중/⁴⁸⁾

[B1]/(13)연 디찰이 ㄷ스되 현판의 명경스라 새쓰니 엇더호 절인지/(14)초
 간 흥회호라(이하어백)⁴⁹⁾

추측하건데 이것은 <上36장본>의 20장 전엽의 일부분을 개각하여 <上20장본>으로 인행한 것으로 보인다.

46) 全集四, 71—105

47) 全集一, 337~46

48) 全集四, 80

49) 全集一, 346

(2) 속향전의 경우

낙질본인 <속향전 권지하(30장본)>⁵⁰⁾ (이하 下30장본)와 <속향전 권지상(20장본)> <속향전 권지중(21장본)> <속향전 권지하(23장본)>으로 된 64 장본⁵¹⁾ (이하 上20장본, 中21장본, 下23장본)이 있다. 대조가 가능한 부분은 <下30장본>과 <中21장본> 14 장 이하 <下23장본>이다.

차이가 나는 곳은 <下30장본> 1 장 전엽 1 행과 <中21장본> 14 장 전엽 1 행이다.

[A1]/(1)속향전 권지하(이하여백)/⁵²⁾

[B1]/(1)마음썩 나는지라 한미의 분묘를 두드리고 일장통곡하더라/⁵³⁾

刻字體의 차이는 [B1]에서만 보인다. 이하 <下30장본>의 8 장 전엽 8 행까지와 <中21장본>의 21 장 전엽 8 행까지는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9 행 이하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인다.

[A2]/(9)이 못하여 표진의 니르리오 하고 신귀흙을 이기지 못하더라 부인이/⁵⁴⁾

[B2]/(9)이 못하여 표진의 니르리오 하고 신귀흙을 이기지 못하더라 이디음/(10)말론 회희의 분명흔지라(이하여백)⁵⁵⁾

또한 9 행의 <부인이>이하 <下30장본>의 8 장 전체를 온전히 새롭게 개작하여 <下23장본>의 1 장 전체로 삼고 있다.

그 이하 <下30장본>과 <下23장본>은 간기를 포함하여 온전한 일치를 보인다 .

여기에서 한가지 더 지적할 것은 <上20장본>과 <中21장본>의 경계를

50) 全集二, 51~65

51) 全集四, 459~92 이것과 동형동판의 낙질본이 全集二, 67~88 에 실려있다.

52) 全集二, 51

53) 全集四, 477

54) 全集二, 54

55) 全集四, 480

이루는 부분이다. <上20장본>의 20장 후엽 13행 이하부터 <中21장본>의 1장 전엽 4행까지는 그 앞뒤와 다른 刻字體임이 확인된다. 이 부분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 (13) 호고 진취 손의 뉘엿거늘 글을 지어 기록하니라 이뒤음 말른 호회 / (14) 분명호지라 (이하여백) // (1) 숙향전 권지중 / (2) 자설 니선이 2후로 공명의 십자 업고 다만 초아을 뉴런호더니 일호은 / (3) 호 사람이 비음을 청호거늘 불너보니 기인이 비비 왈 소성은 남경스호 / (4) 쇼적이러니 호 죽호의 찬제를 엇고저호여 불원천니호고 와노라 /⁵⁶⁾

또한 <中20장본> 13장 후엽 8행부터 14행까지도 刻字體에 있어 차이를 보여준다.⁵⁷⁾

이러한 사실들은 숙향전 역시 上·下 兩卷이었던 것이 上·中·下 三卷으로 분권되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3) 광분양전의 경우

광분양전의 경우 현재 <광분양전 권지상(23장본)> <광분양전 권지중(24장본)> <광분양전 권지하(22장본)>으로 된 69장본(이하 각각 上23장본, 中24장본, 下22장본)이 있다.⁵⁸⁾

이중 개각한 흔적을 남기고 있는 곳으로는 <上23장본>의 23장 전엽 1행에서 3행까지, <中24장본>의 1장 전엽 1행에서 4행까지, <中24장본>의 13장 전엽 1행에서 7행까지, <中24장본>의 14장 전엽 1행에서 11행까지, <中24장본>의 24장 전엽 8행에서 17행까지, <下22장본>의 1장 전엽 1행에서 4행까지 등으로 추측된다.

광분양전의 경우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板心題이다. 왜냐하면 <上23장본>의 경우 <광상>으로 표기되어 있고 <下22장본>의 경우 <광하>로 표기되어 있으나 <中24장본>은 <광중>이 아니라 <광二>로 대부분 표기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中24장본>의 21장 판심제는 <광二>도 아닌 <광하>로 표기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들이 본래 上·下로 분권되었던

56) 全集四, 470

57) 全集四, 477

58) 全集一, 49~83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결국 이러한 사실은 판본양전이 上·下로 분권된 이본이 있었으리라는 추정을 가능케 하며 이들 이본의 출현을 예견할 수 있다 하겠다.

(4) 월왕전의 경우

월왕전 역시 <월왕전 권상(20장본)> <월왕전 권중(24장본)> <월왕전 권하(19장본)>으로 된 63장본⁵⁹⁾ (이하 각각 上20장본, 中24장본, 下19장본)이 있으며 개각의 흔적을 보이고 있다.

<上20장본>의 20장 후엽 6행 마지막 2자와 7행, <中24장본>의 1장 전엽 1행에서 4행 8자까지, 14장 전엽 1행에서 3행까지, 24장 전엽 14행 6자 이후, <下19장본>의 1장 전엽 1행에서 9행 3자까지 등을 대표적인 것으로 지적할 수 있다.

또한 판심제에 있어서도 <월상> <월二> <월하(또는월下)>로 나타나고 있어 <월中>이 아닌 <월二>라는 점에서 이것 역시 上·下 兩卷에서 上·中·下 三卷으로 분권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5) 현수문전의 경우

<현수문전 권지상(20장본)> <현수문전 권지중(23장본)> <현수문전 권지하(22장본)>의 65장본이 2종 보이며 양본은 완전한 동형 동판이다.⁶⁰⁾

개각의 흔적을 보이는 곳으로 <上20장본>의 20장 후엽 14행 마지막 5자와 15행, <中23장본>의 1장 전엽 1행에서 3행, 14장 전엽 1행에서 2행, 23장 후엽 14행 이하, <下22장본>의 1장 전엽 1행에서 3행 2자까지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작품의 분권 양상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것은 각권의 장수이다. 기존의 체제에 있어서는 각권의 장수가 대개 30장 안팎의 모습을 보임에 비하여, 새로운 체제에 있어서는 각권의 장수가 대개 20장 안팎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을 대비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59) 全集二, 303~34

60) 全集三, 377~409 와 全集五, 957~91

작 품 명	기 존 의 체 재	새 로 운 체 재
황 운 전	上30장, 下29장	上22장, 中19장, 下18장
월 봉 기	上34장, 下33장	上20장, 中23장, 下23장
사 씨 남 정 기	上32장, 下34장	上21장, 中21장, 下23장
설 인 귀 전	單30장	上17장, ?
금 향 정 기	上36장, 下32장	上20장, ? ?
숙 향 전	? 下30장	上20장, 中21장, 下23장
곽 분 양 전	? ?	上23장, 中24장, 下22장
월 봉 기	? ?	上20장, 中24장, 下19장
현 수 문 전	? ?	上20장, 中23장, 下22장
권 당 평 균	32장	21.2장

기존의 체재에 있어서는 최소 29장(황운전下)에서 최대 36장(금향정기上)으로 각권 평균 32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새로운 체재에 있어서는 최소 17장(설인귀전上)에서 최대 24장(곽분양전中)으로 각권 평균 21.2장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기존의 체재에 대하여 약 66%의 비율로 새로운 체재가 성립함을 보여준다.

이처럼 평균 30여장의 체재에서 20여장의 체재로 각권의 분권이 바뀌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분권 체재의 변화만이 아니라 매권의 장수를 줄이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분권 체재의 변화의 의미는 다음에서 살필 장수축소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 하겠다.

Ⅲ. 張數 縮小에 依한 異本出現과 本文變異

방각소설의 상업적 성격에 의한 이본출현의 또다른 모습으로 장수의 축소라는 양상이 주로 單卷本을 중심으로 하여 나타난다. 물론 앞에서 살핀 설인귀전 30장본의 경우는 上·下 兩卷으로 나뉘어지고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전체 장수의 축소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겠다. 여기에서는 전운치전과 숙영낭자전의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전운치전」

전운치전의 경우, 현재 확인되는 경판으로는 <던운치전 권지단(37장본)>⁶¹⁾ <던운치전 권지단(22장본)>⁶²⁾ <던운치전 권지단(17장본)>⁶³⁾이 있다. 이들을 대조하여 보면 <37장본>과 <22장본>은 동일한 판목을 사용하고 있으며, <17장본>은 <22장본>을 대본으로 하여 새롭게 인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먼저 <37장본>과 <22장본>을 대조하면 다음과 같다. 兩本은 처음 1장에서 4장까지는 온전히 일치한다. 이하 <22장본>은 <37장본>의 5장과 6장이 빠지고 7장을 5장으로 하여 계속 동일한 모습을 보인다. 즉 <37장본>의 7장부터 13장 후엽 13행까지와 <22장본>의 5장부터 11장 후엽 13행까지는 온전히 일치하고 있으며, 이하 14행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여준다.

[A1]/(14)로 상달흔디 상이 놀나시고 묘정이 의혹헝더라 운치 집의//

[B1]/(14)로 상달흔디 상이 놀나시고 묘정이 의혹헝더라(이하여백)//⁶⁴⁾

刻字體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 [B1]은 [A1]의 <운치 집의>를 刪略하여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 <37장본>의 14장에서 22장까지는 <22장본>에 보이지 않으며, <37장본>의 23장부터가 <22장본>의 12장으로 나타난다. 다만 14장에서 22장까지 모두 9장에 해당하는 누락을 보완하기 위하여 <22장본> 12장 전엽의 시작을 다음과 같이 바꾸고 있을 뿐이다.

[A2]/(1)모다 여출일구여늘 츠후로 운치를 디접헝미 자별 극진헝/(2)더라 츠셜 일ㄷ은 상이 호판더러 문말 전일 호표의 은과 돈/

[B2]/(1)(행 전체여백)/(2)(2자여백)츠셜 일ㄷ은 상이 호판더러 문말 전일

61) 이것은 방대수에 의해 처음 소개된 것이다. 방대수, 전운치전연구, 국문학연구회 1987년 추계연구발표회 발표요지를 참조할 것.

62) 全集五, 815~829 이것은 5장 후엽과 6장 전엽이 2회 영인되었으며 17장과 18장의 순서가 바뀌어있다.

63) 全集二, 589~597

64) 全集五, 821

호효의 은과 돈/65)

〈22장본〉인 [B2]에서는 〈37장본〉인 [A2]의 가점부분을 刪略함으로써 〈초설〉이하 이야기의 진술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22장본〉의 11장 말미인 [B1]에서 〈운치 집의〉를 刪略하고 [B2]에서 〈화설〉 이전을 刪略하여 전체의 서술을 〈……도정이 의혹하더라 초설……〉이라는 외견상 자연스러운 연결의 모습을 보이지만, 〈초설〉 이하의 이야기 전개가 이전에 있었던 사건을 말함으로써 독자를 당황하게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22장본〉에서 누락된 부분인 〈37장본〉의 14장에서 22장 사이에 나오기 때문이다.

이하 兩本은 동일한 모습을 보이다가 〈37장본〉 33장 후엽 3행 〈각설 운치 호효를 보고쳐하여……〉 이하를 〈22장본〉의 22장 후엽 3행 이하에서 완전히 刪略시키고 있다.

[A3]/(1)이 는 오미소복하던 덩시여늘 양성이 정신이 황홀하여/(2)여취여광하여 반갑고 즐거오를 참아 못이기에 이후로/(3)병세 점점 나하가더라 각설 운치 호효를 보고쳐하여 해/(4) 단을 갖초아(이하 생략)

[B3]/(1)이 는 오미소복하던 덩시여늘 양성이 정신이 황홀하여/(2)여취여광하여 반갑고 즐거오를 참아 못이기에 이후로/(3)병세 점점 나하가더라(이하 생략)⁶⁵⁾

〈22장본〉인 [B3]은 〈37장본〉의 〈각설〉이하 방점부분부터 37장까지를 완전히 刪略하여 인행하고 있으며, 〈37장본〉은 〈丁未仲春由谷新刊〉이라는 刊記로 끝맺고 있다.

결국 이것은 〈37장본〉을 上·下 兩卷으로 分卷하는 것이 아니라 판목의 수효를 줄여서 전체의 장수를 축소하여 인행한 것이라 하겠다. 이렇게 하여 간행된 〈22장본〉은 上·下 兩卷으로 分卷하여 인행하는 것보다는 열악한 텍스트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17장본〉은 〈22장본〉을 대본으로 하여 새롭게 판각하여 인행한

65) 全集五, 821

66) 全集五, 827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22장본>의 4장과 5장 사이에, <37장본>의 5장과 6장의 두개의 판목을 누락시킴으로써 발생하는 본문 연결의 부자연스러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본문을 수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해당하는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B]/(13)향하여 스펀하고 노와 부작을 가지고 세금으로 드러가 시/(14)등을 명하여 방장을 쇠소하고 성님스 중의제 석반을 시// (1)라 여호출로 가니 큰 산의 장디한 바회있고 그 아티 굴이 있는지/(2)라(이하 생략)⁶⁷⁾

[C]/(13)……향하/(14)여 사레하고 노와 부작를 가지고 세금사로 드러가 시 동/(15)을 명하여 방장을 쇠소하고 성님사의 드러가 여// (1)호출로 가니 큰 산의 장디한 바회있고 그 아티 굴이 잇/(2)는지라(이하 생략)⁶⁸⁾

이러한 사실은 곧 <17장본>이 주로 <22장본>을 저본으로 삼고, 누락으로 인한 이야기 전개 of 부적절함은 <37장본>을 참조하여 부분적으로 보완하여 인정한 것을 보여준다 하겠다. 왜냐하면 <37장본>의 14장 이하 22장까지를 누락시킨 상태로 인정한 <22장본>의 이야기 전개의 어색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17장본>에서는 <츠셜 운치 스방의 부친 방을 보고 즈현현디 상이 시독을 제슈하시니라>⁶⁹⁾라고 보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37장본>의 14장 이하 22장까지의 이야기 중 다음 단계로의 이야기 진행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서사단위로 보이며, 이런 점에 있어서 <17장본>은 <37장본>을 참조한 것이라 하겠다.

또한 <17장본>은 장수 축소를 위하여 <37장본>과 <22장본>에 나오는 <호조 고직이 장계창의 구출담> <과부를 꿰질하게한 중의 후일담> <오생의 부인 민씨 개유담>이 탈락되어 있다.

이러한 탈락이 있는 반면에 <17장본>은 <22장본>의 끝맺음 이후에 다음과 같은 부연을 하고 있다 .

/ (13)……운치 양심을 하직하고 집에도라와 모부인을 뵈시/(14)고 산중의 잇

67) 全集五, 817

68) 全集二, 591

69) 全集二, 594

서 세월을 보너더라 이 칙이 하 이상호기/(15)로 기록호노라(이하여백)⁷⁰⁾

이와 같은 부연은 <22장본>이 <37장본>의 뒷부분을 탈락시킴으로 인해 발생한 급작스런 이야기 전개와 중단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서술이 끝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결국 전운치전은 <37장본> 판목을 출발로 하여, 이를 부분개각한 <22장본>이 성립되고, 다시 <22장본>을 저본으로 하여 <17장본>을 새로 인행한 것이라 하겠다.

2. 「숙영남자전」

이처럼 판목의 수를 줄여서 간행하는 모습은 숙영남자전에서도 나타난다. 현재 숙영남자전은 <숙영남자전 단(28장본)>⁷¹⁾ <숙영남자전 단(20장본)>⁷²⁾ <숙영남자전 단(16장본)>⁷³⁾의 세 판본이 확인된다.

이들을 대비하면 <28장본>과 <20장본>을 이형동판이며, <20장본>과 <16장본>은 1장부터 10장까지는 동형이판, 그 이하는 <20장본>의 내용을 축약한 이형이판이다.

먼저 <28장본>과 <20장본>의 서두부분을 대조하여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A]/(2)화설 세종조 서의 경상도 안동 쓰히 한 선비 이스되 성은/(3)빅이오 명은 상곤이라 부인 정시로 더부러 동류 이십/(4)여년의 일기 스속이 업셔. 휴야 슬허호더니 명산디찰의 기/(5)도호 후 괴몽을 엇고 일조를 심하여 점조 라미 용되/(6)준슈호고 성되 온유호며(이하 생략)⁷⁴⁾

[B]/(2)화설 세종조 서의 경상도 안동 쓰히 한 선비 잇스되 성은 빅이/(3)요 명은 상곤이라 부인 정시로 더부러 동류 이십여년의 일/(4)기 스속이 업셔 추야 슬허호더니 명산디찰의 기도호 후 괴몽을/(5)엇고 일조를 심하여 점조 라미 용되 준슈호고 성되 온유호며(이하 생략)⁷⁵⁾

70) 全集二, 597

71) 全集四, 445~58

72) 全集二, 9~18

73) 全集二, 1~8

74) 全集四, 445

75) 全集二, 9

방점 부분에 있어 양본은 표기법의 차이를 보이며, 각 행당 차지하는 字數, 매 열당 차지하는 行數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魚尾와 본문 의 내용에 있어서는 동일한 모습을 보인다.

다만 마지막 장에서, <28장본>은 <……선산의 허장허니 일이 괴이한 기로 디강허노라>로 끝냈고, <20장본>은 <……선산의 안장허니라>로 끝 맺는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A(28장본)를 저본으로 하여 B(20장 본)를 새롭게 인행하였거나 B(20장본)를 저본으로 하여 A(28장본)를 새 롭게 인행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20장본>과 <16장본>을 대조하면 10장까지는 동형이판임을 알 수 있다.

앞서 인용한 [B]에 해당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2)화철 세종조 석의 경상도 안동 쓰히 한 선비 잇스되 성은 박이/(3) 요 명은 상곤이라 부인 정씨로 더부러 동류 이십여년의 일/(4)기 스속이 업서 주야 슬허허니 명산디찰의 기도흔 후 괴몽을/(5)엇고 일즈를 싱허여 접고 즈 르미 용피 준수허고 성되 온유허며(이하 생략)⁷⁶⁾

그러나 <20장본>과 <16장본>이 동일한 판목으로 인행된 것은 아닌 것 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우회>가 <우회>로 <견견정을>이 <견견정을>등 으로 달리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16장본>의 10장까지는 <20장본> 을 저본으로 하여 복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1장 이하는 <20장본> 의 해당 부분을 축약하여 인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6장본>이, <20장본>이 화문어미인 것과는 달리, 흑어미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할 때, <16장본>은 <20장본>의 10장까지는 복사하고 그 이하는 축 약하여 인행한 것이라는 추측은 더욱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11장 이 하 축약의 모습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B]/(1)니괴지 못허여 분피 흉춤의 가득허미 아모리 싱차허여도 축여 구천 치하의/(2)도라가 누명을 씻는 거시 올타 허고 또 아히들 이러나면 분명 죽지 못허게/(3)허리라 허며 가마니 춘힘등을 어로만저(이하 생략)⁷⁷⁾

76) 全集二, 1

77) 全集一, 14

[C]/(1)니코지 못하여 심자함미 축는이만 갖지 못헌이라 또 아회드리/(2)이 러나면 분명 죽지 못하게 할리라 하며 가마니 출헿 동환을/(3)어로만져(이하 생략)⁷⁸⁾

그렇다면 <28장본> <20장본> <16장본>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앞에서 우리는 <16장본>은 <20장본>을 저본으로 하여 성립된 것을 지적하였고, <28장본>과 <20장본>의 선후관계는 그 결정을 보류하였었다. 왜냐하면 양본은 표기법의 차이까지 보이는 이형동판이지만 동일한 내용을 보이고 있으며, 어미에서도 화분어미라는 공통점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20장본>이 선행하는가 <28장본>이 선행하는가? <20장본>이 선행한다면 <20장본>에서 <28장본>과 <16장본>이라는 두개의 판본이 파생한 것으로 보아야한다. 이러한 경우, 그 파생의 양상은 장수를 확대해 나아가는 방향과 장수를 축소해 나아가는 방향이라는 상호 반대되는 방향으로의 전개가 있었다고 하여야 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핀 여러 이본들의 파생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경향이 장수의 축소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에 그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28장본>이 선행한다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이 경우에는 <28장본>을 <20장본>으로 판형을 바꾸어 새롭게 인행하고, 다시 <20장본>을 저본으로하여 <16장본>이 나온 것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설명은 앞서 살핀 작품들의 일반적 전개방향과 일치한다. 더군다나 방각소설이 상업적 성격을 지닐 수 밖에 없는 상품으로서의 소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가능성은 더욱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 방각소설들이 서구 인쇄술의 보급으로 인해 딱지본 곧 구활자본으로 출판될 때 나타나는 현상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한 예로써 장풍운전을 살펴보면, 56면본 43면본 31면본이 현재 전하고 있으나, 이들은 모두 본문의 내용과 구체적 서술은 온전히 일치하면서도 전체의 면수를 줄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⁷⁹⁾ 특히 이들 구활자본 장풍운전은 방각본 장풍운

78) 全集二, 6

79) 56면본은 大正五年(1916)六月十四日 漢城書館에서 발행한 것으로 2행을 단위로 하여 漢字를 명기하고 있으나, 43면본(확인된 것으로 가장 빠른 것이 大正七年 一月 十二日 漢城·唯一書館 공동발행본이다)과 31면본(확

전의 뒷부분의 내용⁸⁰⁾을 누락시킨 상태로써 출판되고 있어 면수를 줄이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앞서 살핀 분권의 경우나 여기에서 살핀 장수의 축소는 텍스트 제공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를 지니는가? 분권이라는 것이 매 권당 30여장이던 것을 20여장으로 축소하면서 새로운 체재로의 분권이라는 점에서 역시 장수의 축소라는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분권에 의한 장수의 축소는 원래의 작품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은 상태로써 비교적 양질의 텍스트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새로운 체재로의 분권이 이루어져도 전체 장수의 변화는 미미한 것이며 서술의 양의 변화 역시 미미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순히 장수를 축소하는 것은 이들과는 달리 열악한 텍스트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체 장수의 축소에 따른 서술의 양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이다.

IV. 結 論

위에서 살핀 바에 따르면 먼저 분권에 의한 경우는 대개 30장 안팎의 묶음이 20장 안팎의 묶음으로 바뀌고 있으며, 장수 축소의 경우 역시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각 권의 장수를 줄이고 있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것은 우선 방자소설을 출판하는 입장에서 해명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방자이라는 것이 이미 상품으로서의 출판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상품으로서 출판되고 있다는 것은 이들이 곧 이윤 추구의 대상이라는 것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각권당 소요되는 장수를 줄인다는 것은 곧 생산비를 줄인다는 것이다. 이 생산비를 줄인다는 것은 곧 적정한 이윤을 확보하는 한가지 방법이라 하

인된 것으로 가장 빠른 것이 大正十四年 十二月 五日 博文書館本이다)은 모두 한자를 뺀 상태로 인쇄 발행하고 있으며, 56면본은 처음 보고되는 것이다.

80) 진번의 칩략으로 풍운이 출전한 이후 황녀인 뉴씨가 이경패를 모함하는 부분인 회복-신부과업형의 혼사장애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拙稿 p. 72 참조) 장풍운전에 대한 金起東의 경개소개는 뒷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구활자본에 대한 것이다. (李朝時代小説의 研究, 成文閣, 1974)

졌다.

방각소설이 간행된 조선조 후기의 사회가 화폐경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연속되는 화폐의 발행으로 말미암아 화폐의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⁸¹⁾ 출판업자로서의 방각업자는 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화폐가 처음 주조될 때에는 실질가치와 명목가치가 일치하였지만, 열악한 화폐의 발행으로 인하여 실질가치에 비해 명목가치가 배 이상의 차이가 나게되는 경우에는 이들 출판업자들의 이윤에 대한 집착은 새로운 형태의 소설을 출간하지 않을 수 없게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존의 분권체재를 바꾸어 총판매수입금액을 높여서 이윤을 확보하던지 또는 생산단가를 줄여서 이윤을 확보하던지 하여야만 했을 것으로 보인다. 바로 전자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해 출간된 것이 분권에 따른 이본이라고 한다면 후자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해 출간된 것이 單卷本の 장수축소에 따른 이본이라 하겠다.

이상에서 논의된 것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방각소설이란 상품으로서 출판된 소설이며, 이를 출판한 방각업자는 적정한 이윤을 추구할 수 밖에 없다. 이들이 화폐가치의 변동에 대응하여 이윤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방각소설을 새로운 형태로 출판하여야 하였다. 그 방법 중의 하나는 기존의 분권 체재를 변경하여 총판매금액을 확대함으로써 가능하였으며, 이 경우에 나타나는 이본들은 비교적 변화가 미미한 양질의 텍스트이었다. 또다른 방법은 작품의 장수를 줄이는 것으로 생산비를 절감함으로써 가능하였으며, 이 경우에 나타나는 이본들은 비교적 축약과 누락이 많은 열악한 조건의 텍스트이었다.

분권 또는 축소의 양상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30장 안팎으로 하여 한권의 책이 인행되었으나 이후에는 20장 안팎으로 하여 한권의 책이 인행되었다. ■

81) 崔虎鎮, 韓國貨幣小史, 瑞文堂, 1974 pp. 81~267 참조.